



도법문주보살(가운데)이 부산정보대학교 수강생들과 함께 '현대불교'를 보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하나...답이 있어요”

도법문주보살 '현대불교' 권유 7년째...오늘도...

도법문주보살(56·부산 온천2동)보살은 오늘도 '현대불교'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선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현대불교신문 홍보를 시작할지 벌써 7년째. 이제 법문주보살에겐 쉽사리 그만둘 수 없는 일과가 되어버렸다.

지하철이든 길거리든 어디서나 사람만 만나면 시작되는 '앞에서 천리를 보고, 우주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현대불교를 보라'는 법문주보살의 구독 권유는 때때로 눈총과 외면을 받을 때도 있다. 그래서 서러울 때도 많았다. 집으로 돌아올 때면 이제는 그만두어야지 하며 몇 번이고 다짐을 하면서도 다음날이면 영트없이 현대불교신문을 챙겨든다.

"살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으려고 했을 때 현대불교의 큰스님 법문을 읽고 전기불이 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법문주보살은 "하늘을 보고 울고 다녔는데 현대불교에 살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불법

길거리·지하철, 때·장소가 가리지 않아
"바른법 만나게 해줘 고맙다"에 피로 '씩'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모두 나와 있었다"고 회고했다. 현대불교를 통해 삶의 길을 찾는 법문주보살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문 권유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다.

"눈과 귀를 닫고 마음의 문도 걸어 잠근 사람들에게 불법의 소중함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나?"는 법문주보살의 물음은 그간의 고충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법문을 접하면 나중에 눈뜨고 마음 여는 인연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법문주보살의 신문 권유에 '넌즈시'라 없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기약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구독하는 신문을 한 면 한 면 나누어 들고 다니며 한명이라도 더 권했고, 그도 모자라면 신문을 복사해서 들고 다녔을 정도.

100명 목표를 달성하면 그만두려

했는데 그렇게 한사람 두 사람 늘어난 구독자들이 오히려 법문주보살의 포교활동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바른 법을 만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거나 "신문을 읽고 사는 게 달라졌다"는 사람들의 감사 전화가 그간의 설움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을 모두 잊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법문주보살의 권유로 구독자가 된 이경선(울산)보살은 "어찌나 조목 조목 신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지 읽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며 "다양한 정보와 법문, 신행 소식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차를 타고 밤새워 가야 하는 먼 곳에 계시는 큰스님도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술한 스승들이 길잡이가 되어주니 단돈 5천원으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치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산=천미희기자

2차대전때 희생된 무연고 한인유골·위패

40만기 2006년까지 日서 한국

1차 이어 2차 300기, 3차 11월 1300기

미술교류협 산하 영령봉환본부 추진

제2차 세계대전당시 일본의 군대와 기업소에 강제 징집돼 억울하게 희생당한 무연고 한국인 희생자 위패 및 유골 40만기가 2006년까지 한국에 돌아온다.

(사)세계미술교류협회(회장 이백암, 실장 박동섭) 산하 태평양전쟁희생자 무연고영령봉환사업본부는 9일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본지에 단독 발표했다.

미협 산하 무연고영령봉환본부 강황국 본부장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일본 동경 우천시 등 23개 사절에 봉

안중인 위패와 유골을 올해 11월까지 3차에 걸쳐 한국시키고, 내년 3월부터 2006년까지 매달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세계평화사 본산 주지 송미호룡스님(일본 봉송위원장)과 궁영등명회사 제정주관의 협조에 의해 9월 28일 1차로 일본 오사카 지장원과 아이타사에 봉안된 한국인 무연고 희생자 위패 100기와 본적과 사망년월일, 사망인원이 기록된 명부 등을 이운해와 파주 평화통일사에서 임시 안치한 미협 산하 무연고영령

봉환본부는 2차로 10월 말 위패와 명부 300기(예정), 3차로 11월 1300



일본 지장원에 방치돼 있는 무연고 한인 희생자들의 무덤. 시멘트로 덮여있는데 이 무덤에는 화장된 300~500명의 유골이 합장돼 있다.

기(예정)를 들여올 계획이다.

한편 한국인 무연고 희생자 유골은 화장된 뒤 300~500명씩 사찰의 묘지에 합장되었으며, 재일 한인족 희생자 위패 및 유골 고국 봉안문제는 오랜기간 한 일정부의 현안이었다. 정부는 1993년 '망향의 동산'에 유골 14,400기의 안치가 가능한 납골당을 설치한바 있다.

김원우기자



“진신사리 모신 戒壇 향해 마당서 예배 후대들어 편의에 따라 전각 건립한 듯”

김흥삼씨 '오대산 적멸보궁' 세미나서

불자들이 기도처로 많이 찾는 적멸보궁을 다룬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월정사(주지 현해) 성보박물관은 11일 박물관 개관 3주년(10월 13일)을 맞아 '오대산 적멸보궁의 종합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흥삼(강원대 강사)씨는 '상원사 적멸보궁과 진신사리신앙' 주제발표에서 "오늘날 적멸보궁이란 편익을 붙인 전각은 본래 법당이 아니라 진신사리의 예배장소로 마련된 전각이었기 때문에 불상을 따로 안치하지 않고 다만 진신사리가 봉안된 쪽으로 예배를 위한 불단을 마련(戒壇)을 향해 마당에서 예배하던 것이 편의에 따라 전각을 짓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건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이강근 교수(경주대)는 "적멸보궁이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세워졌는지, 언제부터 불사리봉안처 앞의 배전(拜殿)을 적멸보궁이라 불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문헌기록과 전승 유훈로 볼 때 19세기 초에는 적멸보궁이란 이름이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월정사는 학술 행사의 일환으로 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조선시대 불화 특별전'을, 월정사 용금루 상설전시관에서 '사진으로 보는 오대산(五丈山) 적멸보궁' 사진전을 12월 30일까지 개최한다. (033)334-1817

권형진 기자

무료 노인전문요양원 개원

대구에 '벗다의 집'...의무실·공연장 등 갖춰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불교 무료 노인전문요양원이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김천(대표 오정스님)은 12일 원로의회 부의장 원명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김천사 회주 무공스님, 조해병 대구시장을 비롯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벗다의 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대구시 동구 진인동에 개원한 '벗다의 집'은 2001년 6월 착공 지난 4월 30일 완공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152㎡의 규모로 물리치료실, 의무실, 야외공연장, 장애인시설 등을 모두 갖춘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이다.

입소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거나

나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며 현재 60명 정원에 30여명이 13명의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대구=박원규기자

“법회사 중창 원나라 주도” 김일우씨 주장

13세기 후반 제주 법화사의 대대적인 중창은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世祖)가 원력으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사에서 구절초 향기를 파란 하늘과 향긋한 구절초 꽃 내음이 영령사(주지 환성)를 화장세게로 만들고 있다. 5일부터 13일까지 구절초 꽃 축제가 열린 공주 영령사에서 두 불자가 가을의 정취에 흠뻑 취해 꽃 속에 몸을 담고 독서삼매에 빠져 있다. 공주=임민수기자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가 '고려 후기 제주 법화사의 중창과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5일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김일우 제주문화예술재단 학예연구사는 "법회사 중창(1269~1279)은 고려 왕실의 착안으로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추진과 마무리는 원의 주도"라

미얀마선수단 초청 공연

삼광사, 지속적 교류 약속

14일 폐막된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불교계의 서포터즈는 최후까지 빛을 발했다.

삼광사는 10일, 미얀마 선수단을 초청 만찬을 베풀고 문화 공연을 선보이며 아시안 게임을 통해 맺은 인연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

로 다짐했다.

미얀마 체육부 푸라이 예민 장관을 비롯한 미얀마 선수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만찬에 이어 문화 공연이 열려 미얀마 선수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미얀마 체육부 푸라이 예민 장관과 선수단장 등 6명은 5일 전통불상 53불(佛)을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께 기증하는 특별 법회를 통해 축하했다.

천미희기자

세계一花 대회 열려

논산 무상사에서

한국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 만공월면스님을 기리는 '세계일화대회'가 6일 15개국 130여 명의, 송산스님 제자와 한국, 미국, 캐나다, 폴란드,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온 300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논산 무상사(주지 대봉) 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대광스님(미국) 관음선종회 주

재는 대표설법을 통해 "스승이 제자이고 제자가 스승이다. 스승이 집착하면 스승이 깨달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스스로 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세계일화(世界一花)'란 만공스님이 세상의 참모습을 한 송이 꽃에 비유한 것으로, 송산스님의 전 세계 포교 원력의 바탕이 됐다.

송산스님과 제자들은 현재 세계 32개국에 130여 개 선방을 운영하고 있다.

논산=강유신 기자

통도사 수련동문회 결성

장태호회장등 임원 선출

통도사 수련회를 거쳐갔던 수료생들이 수련회 동문회를 결성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회합의 길을 찾아 나섰다.

5~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제1회 통도사 수련회 동문회에서는 장태호 회장, 강해정 부회장을 비롯 동문회 임원 선출과 회칙을 통과시키고 통도사 수련회 동문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부산, 대구, 경주, 포항, 울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50여명의 수련회 동문들은 3개월 마다

정기 모임을 갖기로 하고, 향후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포교, 봉사 활동 등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통도사 수련회 동문회는 그동안 수련회에 참석했던 1천여명을 훌쩍 넘는 인원을 중 통도사 수련회 참가 인연을 더욱 의미있게 회합하길 원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결성했다.

장태호(46·아이티 영업본부 이사) 회장은 "지역 소모임과 인터넷 동우회 활성화를 통해 수련회 동문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수련회를 통해 접한 불법의 향기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기자



박대각심보살이 인도회 임원들과 '불사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비화, 정대원행, 흥관음행, 박대각심, 최진여성, 강요라지보살.

"지금도 생각하면 하면 눈물이 납니다. 요사체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절에 올라왔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도들이 북한산 매표소에서 기와 한 장, 모래주머니 하나씩 들고 올라와 지은 요사체인데..."

북한산에 위치한 노적사 인도회 명예회장 박대각심(65·서울 서초동)보살은 지난 6월 불타버린 요사체 때문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 1년 후인 26살 때부터 내집처럼 드나들었던 노적사. 하다못해 잘 마당에 떨어진 돌맹이 하나도 내 것처럼 아끼고 정성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대각심보살은 실망하지 않



절 일외 암센터서 의료기 소독봉사도

있다. 부처님이 무상법을 몸소 보여 주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박대각심보살은 사촌언니가 노적사 강진사 화주보살이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40여년간 노적사 주정성을 혼자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사찰중무는 물론 살림살

"저를 이곳에 왔을 때는 조그마한 암자였어요. 지금의 주지스님이 불사를 해 이만큼 사세를 일으켜 놓은 거죠. 저는 특별히 한 일이 없지만 절에 다니면 당연히 화주도 하고 손이 모자라면 절일을 해야 하는 것이니 때문에 사찰중무는 물론 살림살

신도회·합창단 창립 산파역

고양 노적사 신도회 박대각심 명예회장

이까지 그의 머릿속엔 컴퓨터 하드 디스크처럼 기억되어 있다. 또한 신도회를 조직하고 관음회, 합창단을 창립할 때도 산파역할을 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노적사 불교교양대학 2기를 수료했고, 지금도 틈만 나면 불서를 보며 불교적 소양을 높이고 있다.

젊은 시절 수없이 108배를 하며 마음을 낮추려고 해도 욕심이 절로 생겼는데 자식들까지 모두 출가시키고 난 지금은 부처님이 모든 서신들 다 들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대각심보살은 최근 고양시시암연합회에서 만든 봉사단체인 천수천안에서 주회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았다. 지금까지 부처님으로부터 받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대 사회적으로 회향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현재 박보살은 노적사 신도회들과 함께 일산 국립안센터에서 수술도구 등 의료기를 소독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대각심보살의 이같은 선행에 이지비화, 정대원행, 흥관음행 등 노적사 신도회원들도 사찰에서만 하는 소극적 봉사에서 탐구해 직접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다니며 봉사를 하고 있다.

박대각심보살은 "절에 들어 설 때마다 임시로 천막을 쳐 놓은 요사채를 보면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부터 앞선다"며 "당분간은 스님을 도

추천의말

종후스님(노적사 주지)

평생을 한결만 다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멀리 서울 서초동에 살면서 절에 어려서 일만 있으면 한결같이 달려와 도와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지금처럼 길이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길을 걸어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절에 다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대단하다고는 생각됩니다.

박보살은 하심의 자제로 신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회 창립에서부터 관음회, 합창단 조직을 혼자서 해냈지요. 박보살은 한마디로 노적사에서는 없어서 안될 소중한 분입니다.

와 요사채 불사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활짝 웃음을 지어보였다. 또한 걱정이 없이 절에 다닐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해준 남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김두식 기자